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60)

제2부:베일벗는 일본군 실체-47 일제군사시설과 4·3 (6)기초조사 나서야
실태조사 미흡... 역사적 공백기로 남아

입력 : 2007. 03.29. 00:00:00



▲바리메오름 사면에 나 있는 굴착흔적(점선 원안). 일본군이 패전후 군수물자들을 묻고 떠났다는 소문이 나자 파헤쳐졌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1994년 바리메오름 갯도서 유해발견 관심

한국 근현대사 중요시기..체계적 접근 필요

태평양전쟁시기에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 가운데는 해방공간의 '제주 4·3' 당시 희생된 주민들의 암매장터 내지는 피신처로 활용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태평양전쟁부터 4·3에 이르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고 제주는 그 중심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나 학술적 조명은 미흡하기만 하다.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에 구축된 일제 군사시설과 세계사적 비극인 4·3이 이어지는 시기의 연관성 및 실체규명 등은 여전히 학문적·역사적 공백기로 남아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이 시기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조사 정비사업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파놓은 오름의 갯도에서 4·3희생자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는 1992년 4월 구좌읍 다량쉬굴에서 유해 11구가 공개돼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킨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바리메오름에서 발굴된 유해는 송이층을 뚫고 만들어진 '토굴'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는 잘 몰랐지만 '토굴'은 다름아닌 일본군이 이 일대에 파놓은 갱도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바리메오름(발리오름) 일대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제121사단이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121사단은 3개 연대 및 지원부대 등 병력이 1만3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1945년 만주에서 제주로 이동한 뒤 섬의 서북부 일대에 주둔한다. 바리메오름 및 아끈(작은)바리메오름 일대에는 121사단 사령부가 설치되고 노꼬메오름 등 주변에는 연대본부 등이 자리했다.

본보 특별취재팀의 탐사 결과 바리메·아끈바리메오름 일대에서는 이들이 파놓은 10여개의 갱도가 확인된다.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이 판 갱도는 20평 정도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갱도 내부에는 4·3이 발생한 뒤 1948년 겨울 이후 전개된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을 피해 조천지역 사람들 10여명이 피신해 있었다. 갱도에서 지내던 사람들은 대부분 귀순했지만 한 사람은 굴 안에서 계속 머물다가 결국 국방경비대 2연대 병력에 의해 사살된다.

유해는 희생된 지 55년 만인 1994년 3월 16일 제주4·3연구소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발굴 당시 갱도 내부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던 생활도구들이 있었고, 유해는 두개골 외에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서진 상태로 확인됐다.



▲유골이 발견된 바리메오름 갱도 입구를 조사단이 가리고 있다(사진 왼쪽). 지난 1994년 바리메오름 조사당시 조사팀이 갱도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사진 가운데). 바리메오름 갱도 내부에 유골이 보이고 그릇 등 생활도구들이 놓여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별도봉 갱도진지나 바리메오름, 혹은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의 예에서 보듯이 제주도 내 곳곳에 구축된 갱도 등 일제 군사시설 등은 4·3 당시에는 주민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토벌대의 주민학살 장소가 되기도 한다. 그 자체가 고단하고 비극적인 제주민의 삶과 역사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산 역사현장이지만 이에 대한 조사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전 제주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제 군사시설과 제주 4·3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관련 연구 및 조사 정비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